

김옥임 교수가 쓰는 **지족의 경제학** <7>

기독교 권역인 영미문명에는, 산업혁명시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진보에 대한 깊은 확신이 있었다. 이것이 바로 '자유경쟁'을 시인하는 또 하나의 요소로 작용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말법(末法)시대가 있고, 역사는 퇴보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입멸한 후 500년간은 올바른 불법이 널리 행해지는 정법(正法)의 시대가 계속된다. 다음에 올바른 수행법이 행해지기 어렵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는 사람을 볼 수 없는 상법(像法)의 시대가 온다고 한다. '상법'의 시대가 1000년간 계속되며,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은 아직 남아 있어도 이미 수행하는 사람이 없는 '말법'의 시대가 일만년 계속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불교에서는 역사는 진보하는 것이 아니고 퇴보한다고 생각한다. 영미의 진보개념도 결코 무조건으로 진보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진보를 위해서는 도덕이 불가결한 것이다. 영국경제학의 흐름 속에서 거성이라고 할 수 있는 마셜(A. Marshall)이나 케인즈(J. M. Keynes)도 경제에 있어서 도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베블렌(Veblen, T)이 제도적 관점에서 상품과 돈 중심의 현대 경제학에 경고한 바 있다.

아담 스미스는 자유경쟁을 통한 부의 증대와 그에 따른 인간성의 향상을 확신하여 '자유시장주의 경제학'의 토대를 마련했다. 자유경쟁시장을 통한 부(富)의 증대와 인간성 향상은 그의 확고한 신념이었다. 시대가 바뀌어 소련을 위시한 공산권 경제사회가 붕괴된 후 많은 사람들이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세'를 제창했다. 그 소리의 밑바탕에는 당연히 부의 증대와 인간성 향상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과연, 인간성 향상에 대한 신봉은?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공표한 당시의 영국은 바이흐로 산업혁명의 무대에 들어서려는 시대였고 종래의 소규모 상업조직이 근대적 공업제도에 전환하려는 때로서 마침 모직물공업이 본격적으로 성행했던 시기였다. 모직물 공업이 발달하면서 잠깐 많은 양모가 필요해진다. 그 때문에 지주는 양을 먹이기 위해서 목책을 만들고 농민들을 강제로 토지로 부터 쫓아 냈다.

농촌의 자본주의화(enclosure운동)로 인해 농촌에서 쫓겨난 농민들은 도시로 쇄도해 이른바 '도시 빈민층'을 형성했다. 그런데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발전에 따라 방직기계는 조급이라도 사람 손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량되어 가고 있었기 때문에, 공장에서는 그다지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그 때문에 실업한 사람은 기계야말로 그들의 직장을 빼앗아간 악의 장본인이라 여겨 '기계파괴운동(다이트운동)'을 벌인 것이다. 자유주의 경제학은 당연히 인간성의 향상을 확신한 위에서 성립하고 있었지만, 실제 자유경쟁의 결과는 그렇지 못한 것이다. 스미스가 자유주의 경제학에서 그렸던 장밋빛 사회는 실업과 빈곤에 의해 좌초하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자유주의 경제학에 '속고 말았다'고 느낀 최초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18C부터 19C에 걸쳐 일어난 영국의 산업혁명은 다만 영국민의 산업혁명이 아니고 세계적인 혁명으

로 확대되어 갔다. 산업혁명의 결과는 세계의 부를 증가시켰지만, 한편으로는 인류가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참해(慘害)를 초래했다. 여러 종류의 기계의 발명, 증기력의 과학적 응용은 봉건시대의 산업조직을 급속히 변화시키며 복잡한 공장생산을 출현시켰다.

그 결과로서 사회의 빈부 격차는 커졌으며 자본주의 경제조직의 발달은 유산계급과 무산계급을 낳게 했다. 양자의 대립과 알력은 끊임없는 불안과 투쟁을 야기하고 무산계급은 궁지로 내몰려갔다. 그 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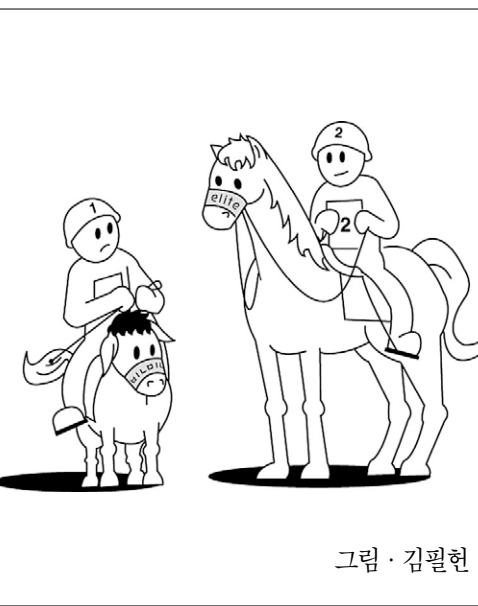


그림 · 김필현

불평등 공정경쟁 빈부격차 · 실업의 원인

'자유시장경제' 정보력 많이 가진 엘리트계층에 유리한 구조

력과 불안의 결과로서 '프랑스 혁명'은 발생했지만, 그 성과는 유산계급이 차지하게 되고 무산계급은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려야 했다. 무산계급은 정치 경제 양면에서 심한 압박을 받으며 더불어 곤궁의 도는 더욱 높아갔던 것이다. 여기에 '스미스' 이래 경제적 활동의 슬로건이 되었던 '자유방임' 또는 '자유재산'을 전제로 한 경제조직과 그 사상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즉, 주류 경제학파의 학자들은 현대의 경제사회조직을 인정하고 '개인책임' 아래의 자유로운 활동을 주장한 것이지만, '자유경쟁'의 결과는 모든 계층을 행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 자유시장경쟁의 결과는 반드시 실업과 빈부의 격차를 낳게 하고, 불황과 실업, 빈곤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각국 경제를 끊임없는 고민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다.

현대국가에서는 실제로 시장메커니즘이나 자유경쟁이라고 하는 제도적 장치의 모양새는 대단히 민주적이다. 시장에서 팔고 사는 행위는 개인의 자유재량에 맡겨져 있어 어느 누구도 강제하지 않는다. 이미 중세와 같은 노예제도는 없어진지 오래이므로 누구나 일하고 싶으면 일하면 되고, 일하고 싶지 않으면 일하지 않아도 된다. 경제활동 그 자체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자유이다. 그런 자유로운 개인의 판단이 시장의 조정기능을 통해서 사회전체의 가장 적합한 자원배분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시장은 '경제활동의 민주주의'인 것이다.

이처럼 민주주의의 옷을 입은 훌륭한 시장의 장치가 자동적으로 순환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불평등한

구조를 만들지라도 그것은 민주주의적인 규칙에 따라 일어난 일일므로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것은 뿌리 깊은 자본주의 사회의 명절이다. 실제로 마르크스는 '노동의 상품화'와 '자유계약'이라는 개념으로 자본에 의한 노동의 착취상태를 보이지 않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분명히 노동자는 자유의사로 고용계약을 맺은 것이므로 그 결과 불평등한 분배가 일어나도 아무런 불평도 할 수 없게 되었다. 자유시장이라는 제도는 그런 의미에서 아주 훌륭한 '지배를 위한 도구'가 된다.

또한, 이와 같은 민주주의적인 차이를 한 자유시장 메커니즘이라는 장치는 많은 경우 엘리트계층에게 유리한 구조로 되어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엘리트층이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진 쪽이 시장거래를 유리하게 수행할 수 있다. 서브프라임론(Sub-prime Mortgage Loan: 비우량주택담보대출)을 빌려서 주택을 지으면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 정보를 가지지 않은 수많은 저소득층은 잘 알 수 없었을 것이다. 한편 서브프라임론이란 속임수까지를 개발한 미국 월가의 엘리트들은 이용자를 받은 사람들의 운명을 명확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다.

결국 아무리 민주적인 '자유시장경제'라고 해도 정보가 불평등한 이상 공정경쟁을 통한 균등한 소득 분배는 이루어 질 수 없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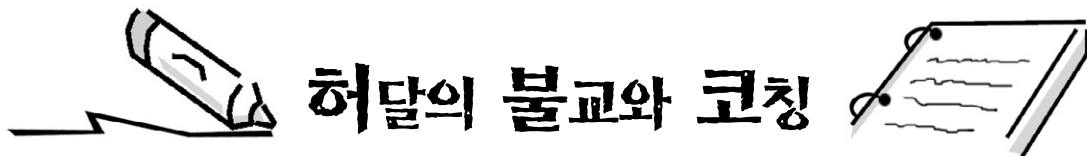
■ 안동대 경제학과 교수

⑦ 코칭의 언어학 1 - 경청

<위키피디아 사전>을 참고하면, 북아메리카 원주민인 인디언들의 추장회의에서 'Talking Stick'이라는 막대를 사용하였다고 전해진다. 추장회의에 참석한 여러 부족장 중 이 막대를 잡은 사람만이 발언권을 가지며, 막대는 순차적으로 다음 부족장에게 넘겨져서 차례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규칙을 정했다는 것이다.

적어도 말을 듣는 사람이 상대방의 말을 먼저 자르고 들어가 효과를 극대화하여 자기 의사를 표명할까를 생각하는 일을 방지하는 것만으로도 이 방법은 의사소통에 큰 효과를 보았을 것이다.

우리는 많은 경우 자신의 발언 차례를 기다리기 위해 남의 발언을 듣거나 또는 듣는 척 한다. 그렇지 않고 적극적 경청을 하는 경우에도, 자신의 잣대와 준거틀(Frame of Reference)을 통해 상대방의 말을 듣는 동시에, 자신의 자서전 속에서 이에 해당하는 경험을 꺼내, 이로써 상대방에게 충고하려 하거나, 그 말의 의도를 탐색, 해석, 판단하려는 생각들이 머리 속에서 복잡하게 일어난다. 그리고 이것들이 알게 모르게 듣는 이의 반응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데 이를 자서전적(自叙傳的) 반응이라고 말한다. 이 경우 듣는 이의 머리 속에 들어 있는 것은 '나' 뿐이라고 말해도



과연이 아니다.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듣는 이의 이러한 자서전적 반응을 어떻게 느낄까? 자신이 이해 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며, 대화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게 된다.

최근 워크숍에서 해보았던 재미난 게임 '휴가계획' 실험을 하나 예로 들어 보자.

참여자를 두 명씩 짝을 짓도록 한 뒤에 '가위 바위 보'를 하게 하여 이긴 사람이 먼저 듣는 역할을 맡고, 진 사람이 말하는 역할을 맡는다. 말하는 주제는 '휴가계획'이다. 2분 동안 지어내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계획을 성실하게 이야기하도록 말하는 이에게 다짐을 받는다. 그런데 듣는 사람의 태도는 가급적 성의 없이 들으라는 주문이다. 이 게임이 시행되면 휴가 계획을 이야

기 하는 사람은 진지한데 반해, 듣는 이는 안경을 벗어 뉘겨나, 코를 토폴던지 만전을 꾀워, 결국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이야기하는 분위기는 잦아들고 만다.

게임 법칙으로 이번에는 반대로, 주임세를 넣어가며 열심히 듣는 역할이 듣는 이에게 부여된다. 아쉬움과 탄성, 그러나 비록 처음에는 연출된 경청

공감하며 경청하면 상대방 마음 열수 있어

의 분위기로부터 시작되지만 대화는 곧 회화에 해져서 휴가계획 이야기는 정해진 2분이 다 지나도록 끝나지 않고 이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이 실험은 대화의 내용과 질은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태도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생생한 체험이다.

자서전적 반응에서 듣기를 주도하는 '나'라는 준거틀을 상대방 쪽, 말하는 사람의 것으로 바꾸어 넣는 듣기 방법을 '공감적 반응' '공감적 경청'이라고 말한다. 공감적 반응을 보이면 말하

는 이는 자신이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게 되며, 드디어 마음이 열려 숨어 있던 화자(話者)의 주제가 드러나게 된다.

공감적 반응을 보이는 방법을 일종의 스킵로 보아 연마할 수도 있는데, 상담의(相談)들이 활용하는 흉내내기, 동의어로 바꿔 반응하기, 말하는 사람의 느낌과 감정의 흐름을 성찰하고 표현하기, 반응 속에 침묵을 적절히 배치하기 등이 그러한 기법 중 자주 쓰이는 방법으로 코칭에서도 이 상담기술을 활용한다.

코치는 이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맥락적 경청(contextual listening)을 하도록 훈련 받고 또한 끊임없이 스스로를 훈련 하는데, 이는 화자의 말과 의도, 느낌에 공감하는 능력은 물론 상대방의 언어 구조에서 발견되는 함의(含意), 자주 쓰는 단어와 그 빈도수, 대화 부분 부분의 에너지 레벨까지 성찰하는, 이른바 존재(being)에 접촉해 고객과 함께하는 듣기 방법이다.

그러나 이 기술들의 밑바탕을 이루는 것은 역시 고객에 대한 깊은 연민(Compassion)이며, 그를 돕고자 하는 선한 친절(Loving Kindness)이다. 연민이라고 표현하였지만 'Compassion'은 자비심의 영어 표현인데, 타 종교에서 사용하는 자비(Mercy)와는 확연히 구별된다. 'Mercy'라는 단어가 우월적 존재가 밑으로 내려주는 하향식 자비심에 비하여 'Compassion'은 본질적으로 평등한 관계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랑과 연민을 뜻하는 불자의 자비심인 것이다.

■ 한국코칭센터 고문

초판 22쇄의 스테디 셀러!!

10,000원 A5/287쪽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삶은 고가 아니다

길을 묻는 이들에게 전하는 대행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룸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하던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구입문의: 현대불교 현불샵 2004-8215~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속의 불법을 설하는 **대행스님 법어집** -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www.hyunbulshop.com

▶ 허공을 걷는 길 대행스님 법문 전집 (법회별 출간) ▶ **▶ 한마음요전** 대행스님의 구도기 · 법어 · 계승 · 선화의 집대성
▶ **▶ 신행요전 (법어집)** 기본적인 예불 의식과 관법의 기초를 담은 불자입문서 ▶ **▶ 대행스님의 뜻으로 풀** 금강경 (독송음)
▶ **▶ 만 가지 꽃이 피고 만 가지 열매 익어** A Thousand Hands of Compassion (Korean/English) 대행스님의 뜻으로 풀 천수경 (한글/영어)